KLD 국토일보

국토교통진흥원, 노사한마음 지역아동센터 위문…드론교육 등 아이들에 '인기'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8.10 16:58

청렴교육 및 퀴즈, 신기술 교육 등 체험활동 지원 인상 남아

국토교통진흥원이 노사한마음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지부장 경제운)은 노사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지역 소외 계층아동에 대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10일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관양흰돌지역아동센터(대표 백창근)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오랜 기간동안 관내 지역사회 아동들을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백창근 대표는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청렴교육 및 퀴즈 이벤트, R&D 신기술(드론)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은 지역아동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으며, 학용품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봉사자 선생님이 청렴교육, 직접 드론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드론을 실제로 봐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봉사 내용, 일정 등을 봉사참가자, 지역아동센터와 사전협의해 봉사내용을 결정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가치경영실 이소현 연구원은 "아이들에게 드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며, 안양출신 공공기관 직원으로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어서 가슴 뿌듯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실 최현화 선임연구원은 "윤리감사실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원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소개하는 자리를 노사가 함께 만든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18.6.14 출범한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의 지부로 공공전문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익 보호 및 공공전문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이다.

조합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강화,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복지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과 향상을 위해 정책 제안·개발을 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관단체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공동의장기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의(의장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현 기자